

농촌일감갓기 사업의 과제와 발전방안

이 영 석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양공통과

Activities of and Improvements in the "NONGCHON ILGAM GATGI" Project(An Income Generation Project for Rural Areas)

Lee, Young Suk
Dept. of General Education,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llege, Hwasung, Korea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NONGCHON ILGAM GATGI" project (an income generating project for rural areas) and to suggest possible improvements. Among the 567 business which have been supported by the project, implemented in 1990 by the Department of Rural-Home-Improvement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361 (63.7%) can be categorized as being in the self-supporting stage. Another 126 (22.2%) can be said to be in the incubation stage.

Data for the case study was collected from 20 project sites. The "NONGCHON ILGAM GATGI" project has been progressing successfully when compared with other rural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Among the problems are the lack of a business mindset and management abilities in individuals, and the fact that the businesses and their products are not well known on the market. To remedy these problems, education toward improving business and management skills, a unified public relations system, and institution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re greatly needed.

Key words: project "nongchon ilgam gatgi", rural-women, outer-farming-income, by-income of farm, agribusiness

I. 서론

2002년의 농가소득은 도시가계소득의 75%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세계화와 개방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우리 농업도 이제는 농산물 생산에만 매달려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02년 현재 농가인구의 비율은 8.3%에 불과하여 농촌공동화와 도시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농촌에 살면서,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을 찾는 일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여기에 농촌일감갓기 사업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농가에서 가공·생산되던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많은 가공식품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상업자본에 의하여 생산·공급되면서, 한편으로는 대규모·대량생산과 지나친 상업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접수일: 2003년 7월 25일 채택일: 2003년 9월 30일
Corresponding Author: Lee, Young Suk, Tel: 031-229-5035
Fax: 031-229-5071 E-mail: yslee@kn.ac.kr

특히 고가의 국내산 농산물보다는 저가의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에 따라서, 예컨대 '02년의 농산물무역적자는 43억2천7백만 US\$로 수출액 13억7천5백만 US\$의 3.1배에 이르는 등, 국내 농산물 생산과의 연계가 단절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성과 일손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대 규모-대량생산이 곤란하고, 지역적 특성을 가진 우리 고유의 다양한 전통식품들은 규격화되고 통일된 '공장제품'들에게 점차 그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생활여유와 개성적 소비의 확대 등으로 확실히 통일된 가공식품보다는 다양한 맛과 향 등의 특성을 가진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점차 다양한 틈새시장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생활방식이 달라지면서 성인병과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의 예방 등을 위한 건강식품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짐으로서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손동화, 2003). 또한 도로와 교통, 통신, 택배 등의 유통체계가 발달하면서 전국 각지의 농촌마을에서 소량씩 생산되는 다양한 품목, 즉 다품목-소량생산에 의한 공급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여유와 개성적인 소비 추세는 앞으로도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틈새시장이 앞으로는 더욱 다양해지고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동안 갈수록 잊혀지고 멀어져왔던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에 대한 수요도 점차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농촌일감갓기 사업의 여건이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농촌일감갓기 사업은 1990년 '농촌여성 일감갓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바, "여성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서 여성 스스로 삶의 의욕과 자긍심을 갖게하며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농가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농촌진흥청, 1997). 즉 여성을 중심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농업생산의 특수성(농번기

와 농한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실업의 반복에서 비롯되는 유희(가용)노동력을 경제활동에 연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가, 혹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를 가공하여 판매토록 하고, 지역 내 부존자원을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의 성격이 바뀌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산물을 생산하여 팔아서 생활필수품인 공산품을 사서 써야하는 농가경제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공산품의 구입가격간의 관계인 「농가교역지수」가 차츰 좋아지도록 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때문에 농장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우거나, 그것이 제한된 농가들은 그의 경제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농촌일감갓기 사업은 농가의 경제활동 영역을 넓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하겠다.

농촌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일감갓기사업은 1990년에 5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2003년 5월 현재 모두 567개 사업장으로 늘어나 그동안 꾸준한 발전을 계속해오고 있다(김화남, 2003).

그러나 주로 여성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주도되고, 참여 농가들도 여성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도 크지 않아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소박하고 순수해야 할 농촌여성들에게 상업주의 의식을 조장하여 농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영세한 여러 농가들이 난립하여 자칫 비위생적이고 조잡하고 불량한 제품들을 내놓아 시장과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고 권장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농촌일감갓기 사업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업장 관계자 및 관계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비표준화된 조사표에 의한 면접과 현장조사로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는

2003년 5월 13일부터 30일 사이에 10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20개 사업장(표 4 참조)과 일선기관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방문조사의 대상은 제주도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에서, 각각 경영을 잘 하고 있는 사업장 1곳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1곳씩, 2~3개 사업장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전국의 20개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조사내용은 사업개시연도, 생산품목, 규모, 투자자본, 매출액, 자립소요기간,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당면과제, 앞으로의 전망과 건의사항 등이었다.

또한 이동필 등(1995), 임평자 등(1995), 정기환(1997), 박성자 등(1997), 오내원 등(2001)의 농외소득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들에 대한 문헌조사가 병행되었다.

III. 농외소득 관련정책에 대한 고찰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농가들의 농외소득 비율은 1997년의 36.9%를 최고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고, 농촌체험관광이나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정책지원사업은 아직 시도단계에 있을 뿐,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산단지 개발사업,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식품가공사업, 여성농민 일감맞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박성자 등, 1997).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은 농촌의 광범위한 유희노동력과 부산물 활용을 통한 빈곤해소를 목적으로 1967년부터 추진되었던 부업단지 조성사업과 1972년부터 추진된 농공병진을 본격화한 새마

을공장 조성사업이 있었고, 이러한 정책이 부분적, 개별적, 분산적으로 추진되는데 따른 부작용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통합·입안했었다(서종혁 등, 1986).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981년 당시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983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했다(오내원 등, 2001). 이에 근거하여 '84년 7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한 이래로 2000년까지 모두 295개소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지만, 노동력 활용에 있어서 농촌지역의 주산업(主産業)인 농업과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가동률과 입주율 등이 낮아지면서 정책효과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6~'91년 사이에는 매년 39.3개소씩 236개소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지만, '92~'97년 사이에는 연평균 8개소씩 48개소가, 그리고 '98~2000년 사이에는 연평균 1.3개소씩 4개소가 조성되는 등, 갈수록 한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67년 이래 추진되어오던 농가부업단지 사업은 1990년부터 지역특산품 개발에 초점을 맞춘 「특산단지 육성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계속되어 왔지만, 2000년 현재 그동안 지정된 1,497개소 중에서 721개소만 운영되고 있다(48.2%). 특히 사업추진이 활발했던 '67~'90년 사이에 조성된 951개 사업장 중에서 2000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은 27%에 불과한 257개 사업장에 불과한 실정이다(오내원 등, 2001). 현재 운영중인 721개 사업장도, 민속공예품(도자기, 목공예, 죽세품 등)이 420개소(58.2%), 종이상자나 인삼발 등의 농수산물자재 생산이 91개소(12.6%), 면장갑이나 모시와 같은 섬유직물이 88개소(12.2%), 석재가공 및 석공예가 61개소(8.5%) 등으로, 농가가

Table 1. Past records of the Rural Industrial Parks(RIPs)

Item	Total	Year			
		'84	'86~'91	'92~'97	'98~2000
Amount of RIPs	295	7	236	48	4
Average Amount of RIPs per year	17.4	7.0	39.3	8.0	1.3

* Sourc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고부가가치화나 상승효과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내원 등, 2001).

특산단지외의 휴폐업 원인은, 판매부진과 운영자금의 부족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과 원료의 계절성 등으로 지속하기가 어려웠고, 대기업의 제품생산으로 인해 경쟁력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서종혁, 1991).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관광농업은 관광농원, 농어촌휴양지 등의 형태로 그린투어리즘이 개발되고 있으나, 그린투어리즘 시장 미성숙, 전문인력의 부족, 사업계획의 미흡,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강신겸,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농의소득원개발촉진법(1984)과 농어촌특별조치법(1990) 제정 등을 통해서 농의소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농가인력의 노령화와 WTO 체제 이후의 시장개방 등의 영향으로 농의소득의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정기환, 2003)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IV. 조사결과 및 고찰

1. 농촌일감맞기사업의 성과와 과제

사업이 시작된 1990년부터 2003년 6월 현재까지 농촌일감맞기 사업장은 모두 567개소로,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비가 지원된 사업장이

149개소인데 비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한 지방비 지원사업장은 그의 3.8배나 되는 418개소에 이른다.

국비가 지원된 사업장은 1990년의 5개소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부터는 매년 10개소 이상씩, 2000년부터는 매년 20개소 이상씩 지원해 오므로서 그동안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방비를 지원한 사업장은 1990년의 11개소를 시작으로 2003년 6월 현재 418개소에 이르러 국비 지원사업보다 지방비 지원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일감맞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일선 현장에서 더 절실했고, 이러한 요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농촌일감맞기 사업장의 생산품목은 대부분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류로, 전체의 88.9%인 504개 사업장이 장류(된장, 고추장, 청국장)와 전통한과류, 과일즙, 참기름, 콩나물 등을 생산하고 있고, 비식품류(천연염색직물류, 누비제품류, 삼베가공제품류, 생활압화 등)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은 11.1%인 63개 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업노동력과의 경합과 원료공급의 불안정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된 총 567개 사업장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2. Past records of the project "nongchon ilgam gatgi" (Amount of Place of Business)

Year	1990	1995	2000	2003. 6
Expense of the State (the cumulative total)	5	38	105	149
Expense of the district (the cumulative total)	11	164	351	418
Total	16	202	456	567

Table 3. Distribution of growth Stage of the project "nongchon ilgam gatgi" (2003. 5)

Growth Stage	Expansive development	Self-management	Stage of Incubating	Unfruitful Stage	Total
Amount of Place (%)	110(19.4)	251(44.3)	126(22.2)	80(14.1)	567(100.0)
	361(63.7)				
	487(85.9)				

그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자립경영의 단계를 넘어서 확대·발전시킨 사업장이 110개소(19.4%), 외부로부터의 특별한 지원이 없이 꾸러가고 있는 자립경영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251개소(44.3%)

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63.7%인 361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등의

표 4. 사업장별 주요조사내용

사업장	사업 연도	생산품목	규모 (평)	투자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자립소요 기간(년)
단드레 식품 (경기 이천)	'01	황기한과	40	57 (지40, 자17)	70 (10/인)	5
서경들 된장 (경기 이천)	'92	전통장류	58	312 (지255, 자49)	127 (12/인)	6
해실 전통장 (경기 포천)	'98	전통장류	30	45 (지39, 자6)	24.4 (3/인)	3
잔치방 (경기 포천)	'00	잔치/행사음식	35	51 (지40, 자11)	189 (13/인)	3
해금강 식품 (강원 고성)	'99	가시리묵	40	38 (지34, 자4)	13.5 (6.5/인)	3
건봉다시마장 (강원 고성)	'00	다시마장	50	55 (지50, 자5)	20 (3/인)	1.5
전통장류 (충북 옥천)	'00	전통장류	20	41 (지30, 자11)	10 (2/인)	3
포도·칩즙 (충북 옥천)	'97	즙류	30	40 (지30, 자10)	14 (7/인)	3
구기자 한과 (충남 청양)	'94	구기자 한과	174	266 (지174, 자92)	750 (23/인)	3
칠갑산농원 (충남 청양)	'99	고추가루	80	54 (지54)	100 (10/인)	5
민속 유과 (전북 익산)	'01	유과	30	72 (지57, 자15)	99 (14/인)	2
울외장아찌 (전북 익산)	'95	울외, 깻잎, 재래메주	70	17 (지15, 자2)	47 (10/인)	2
평양백운꽃감 (전남 광양)	'01	꽃감	100	144 (지140, 자4)	67 (9/인)	3
전통장 (전남 광양)	'00	전통장류	20	60 (지60)	15 (10/인)	3
산야초원 (전남 보성)	'99	송화차, 홍매실차	30	117 (지24, 자93)	70-150	5
다향병과 (전남 보성)	'01	녹차한과, 폐백음식	50	48 (지40, 자8)	40 (3.5/인)	5
세상매실원 (경북 울진)	'01	매실차	40	71 (지50, 자21)	'03부터 판매개시	3 (예상)
매화장수 쌀엿 (경북 울진)	'93	쌀엿, 조청	49	196 (지143, 자53)	80 (20/인)	3
함안전통메주 (경남 함안)	'96	5분청국장, 메주, 된장	40	52 (지20, 자32)	74 (14/인)	3
연송이 (경남 함안)	'02	연근피클, 생연근	30	50 (지40, 자10)	'03부터 가동	3 (예상)

이유로 지도와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보육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126개소(22.2%)로 조사되어 전체의 85.9%인 487개 사업장은 당초의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성공을 거두었거나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경영이 부실해서 중도에 포기했거나 폐업위기에 놓여있는 사업장이 80개소(14.1%)인 것으로 조사된 바, 이들은 대체로, 생산량이나 채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산나물을 원료로 한 사업장이나 인근의 제조업체로부터 재료를 조달받아 조립하여 납품하는 임가공 사업장으로, 비교적 경기에 민감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장들이다.

지난 5월중 10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농촌일감갓기 사업장의 대장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농촌일감갓기 사업장의 규모는, 적게는 20평(전남 광양의 전통장)에서 크게는 174평(충남 청양의 칠갑산구기자한과)으로 다양하지만, 대체로 50평 내외가 가장 많았다.

또한 사업장별 투자규모는, 평균 8,900만원으로 1억원에 밀도는 것으로 계산되었지만, 사업장에 따라서 적게는 1,700만원(전북 익산의 울외짬아찌)에서 많게는 그의 18.4배에 이르는 3억 1,200만원(경기 이천의 서경들 된장)으로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로부터 지원된 자금의 규모는 사업장별로 적게는 1,500만원(전북 익산의 울외짬아찌)에서 많게는 그의 17배에 이르는 2억 5,500만원(경기 이천의 서경들 된장)으로 차이가 크지만 평균적으로는 6,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자부담 규모는 사업장당 평균 2,200만원으로 계산되었지만, 적게는 200만원(전북 익산의 울외짬아찌)에서 많게는 그의 46.5배인 9,300만원(경기 이천의 서경들 된장)으로 사업장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간 매출액은 사업장 규모와 투자규모, 생산품, 사업연륜 등에 따라서 적게는 1,000만원(충북 옥천의 전통장류)에서 많게는 그의 75배에 이르는 7억 5,000만원(충남 청양의 칠갑산구기자

한과)으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사업장당 평균은 1억 500만원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사업참여자 1인당 연간소득은, 평균 900만원으로 계산되었지만, 사업장에 따라서 적게는 200만원(충북 옥천의 전통장류)에서 많게는 2,300만원(충남 청양의 칠갑산구기자한과)으로 11.5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농촌일감갓기 사업장이 자립경영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적으로 3.4년이 걸린 것으로 계산되었지만, 사업장에 따라서는 가장 빠른 경우가 1.5년(강원 고성외의 건봉다시마장), 가장 늦은 경우 6년(경기 이천의 서경들 된장)으로 다양하지만, 대체로 5년 이내에 자립경영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농촌일감갓기 사업은 사업장에 따라서 그의 규모, 투자규모, 매출액, 자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각각의 사업장이 각각의 사업 아이템과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사하여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농촌일감갓기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과 제도의 측면을 살펴보면, 일반 농수산물 가공과 식품은 「식품위생법(식품공전)」과 「약사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하고, 축산물과 인삼(제품 제외)은 「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및 「인삼산업법」에 의해 농림부가, 주류는 「주세법」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대체로 영세사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다양한 가공방법, 제조형태, 원부자재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하고 있다(이동필, 2000; 23). 이러한 현행의 규정들은 두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는 원료 농산물의 생산은 농림부가, 가공은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이 담당함으로써 우리 농업생산과 식품가공산업의 효과적인 연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저해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

고 육성하는 시책의 뒷자리에 이들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예컨대 전통주와 같은 주류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을 통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정현배, 2002)는 점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2. 사업추진의 애로와 과제

이상의 실태와 실적에 대한 평가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일감갓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애로와 과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사업 참여자들의 경영마인드 부족이다. 제품의 가공·생산·작업 등에 대한 기술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숙달되어 제품생산은 3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만, 사업장의 회계, 경영, 판매, 그리고 경영마인드 등의 분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사업장 대표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둘째, 농촌일감갓기 사업의 성패는 소득 여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소득 극대화」를 목표로 경영하지 않을 수 없고, 식품가공업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농촌일감갓기 사업장이나 농촌의 전반적인 정서는 “노는 것보다는 낫다”거나 “노느니 용돈이라도 버는 게 낫다”는 매우 소박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 참여자들의 농촌일감갓기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 사업마인드 등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1차적인 목표인 자립경영 단계에 이른 사업장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잊혀진 전통식품을 발굴·재현하는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단계 더 성장·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도약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제품개발에 대한 지원과 지도도 꾸준히 계속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국내산 원료로 만들어진 농촌일감갓기

사업의 제품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소비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농촌일감갓기 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농촌일감갓기 사업」 자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사업장까지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500여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 농촌일감갓기사업의 발전방안

1. 농촌일감갓기 사업의 기본전략

- ① 사업장은 사업주체가 되는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둔다.
- ② 일감제품은 해당지역 및 그 주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마을의 농업생산과 별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사업을 위한 가공·생산·상품화 작업이 해당 지역 거주자(농어민)들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한다.
- ④ 사업의 영역은 향토음식, 놀이, 생활도구 제작 및 사용 등의 전통문화 체험, 농촌체험과 같은 사업까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와 같이, 사업개시 3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중에 자립경영 단계에 이르도록 지도·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될 농촌일감갓기 사업이 추구해야 할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일감갓기 사업은;

- ①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한계에 이른 농가소득을 보완·증대시킴으로서 농촌가계가 도시가계에 크게 뒤지지 않도록 하고,
- ② 농촌마을 단위의 공동경제활동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농촌경제를 보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활기가 있는 마을 공동체 유지를 뒷받침함으로써 재촌영농(在村營農)이 유지되도록 하여, 농촌공동화와 도시과밀화를 완화시키고,

- ③ 신선도와 안전성에서 앞선 우리 농산물과 그의 가공식품을 통해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공식품 틈새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며, 특히 주로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상업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공식품과 수입가공식품을 적절한 선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 ④ 차츰 멀어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보다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 ⑤ 장차는 세계화에 가장 확실한 전략인 “가장 한국적인” 전통식품을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개선 및 발전방안

농촌일감갓기 사업은 비록 농산물 생산을 주로 하는 농가가 ‘일감갓기’를 통해서 부업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농산물 생산에만 의존한 농가 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에 살면서,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농촌공동화와 도시과밀화를 저지하고, 활기가 있는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뒷받침하고, 차츰 멀어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보다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차는 세계화에 가장 확실한 전략인 “가장 한국적인” 전통식품을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농촌일감갓기 사업을 일선에서 지도하는 공무원과 사업참여자들이 농촌일감갓기 사업의 이러한 의의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상응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마인드, 회계, 경영, 판매 분야에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을 강화하고, 전통식품을 발굴·재현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 국민을 상대로 농촌일감갓기 사업을 널리 알리고, 그

의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농촌일감갓기 사업 박람회(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농촌일감갓기사업 제품에 대한 종합카탈로그를 제작·배포하고, 농촌일감갓기사업 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망(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촌일감갓기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규정들은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보다는 제한과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VI.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일감갓기 사업은 비록 시작은 ‘부업적’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영농규모가 영세한 우리 농가들이 마을 단위로 힘을 합하여,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여 소득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 우리 농업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실정에 아주 적합한 영농모델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각과 평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한 편이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지원하고 담당하는 일선의 실무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일감갓기 사업을 보는 외부의 시각도 단순히 만들어진 제품의 기능이나 위생, 경쟁력에 관심을 가졌을 뿐, 이 사업의 파급효과나 역할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

따라서 농촌일감갓기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동안 부족했던 사업마인드 진작과 경영기법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의 주변에서도 이 사업의 파급효과와 의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 사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특산물의 가공을 감독하고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법률과 규정들은 이를 육성하고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칫 국내 가공은 묶고 수입 가공식품은 묶을 수 없는 처지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참고문헌

농림부(2002). 2002년도 농림업 주요통계.
 강신겸(2003). 그린투어리즘 수요활성화 방안,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추진방향. 한국농
 업정책학회 2003 하계심포지엄('03. 7. 2) 발표논
 문집. 41.
 김화남(2003). 농촌일감맞기사업 추진방향, 농촌일감
 맞기사업 평가회(2003. 7. 22) 자료집. 4.
 농촌진흥청(1997). '97 농촌여성 일감맞기사업 연찬
 회 자료집. 8.
 박성자(1997). 여성농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조사
 연구. (사)한국여성농민연구소. 7~11.

서종혁·이동필·조혁중(1986). 농촌공업과 농공지
 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연구보고. R133. 38.
 서종혁(1991). 농외소득원 개발정책의 평가와 장단기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68-269.
 손동화(2003).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과 농업계의
 과제, 제34차 신유통토론회('03. 6. 5) 발표자료
 집.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17.
 오내원·정기환·최경환·김은순·김태곤(2001). 농
 외소득 증대의 방향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34~45.
 이동필(2000).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
 후 과제. 세미나(2000. 2. 8) 자료집.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3.
 정기환(2003). 그린투어리즘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농촌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추진방향. 한
 국농업정책학회 2003 하계심포지엄('03. 7. 2) 발
 표논문집. 79.